AUTHOR 윤종훈 (Jong Hun Yoon)

TITLE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에 관한 개혁주의적 소고 (小考) (An Inquirty into the Calvinistic Worldview and Culture Mandate)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72 no.4 (Winter, 2005):257-284

리품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셋째, 특별 계시의 교의는 기독교 예술 철학이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며, 예술은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넷째, 창조 교의 속에서 '예술가-작품-수용자의 관계'를 탐구하였고, 기독교 예술 철학은 모방이 아닌 창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타락의 교의는 상상력이 이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술이 사단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타락의 교의는 예술가 자신이 창조한 작품 세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성령에 의한 저자의 영감도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술가-작품-수용자' 상을 제시한다. 또 성령의 영감은 교회가 세계의 미를 선물하는 공급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곱째, 성육신 교의는 기독교 예술의 토대이자 최종 방어선으로 현대의 예술사조에 대해 변증할 토대를 제공하며, 기독교 예술철학의 독특성은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에 관한 개혁주의적 소고(小考)

- 창조, 타락, 구속(완성)을 중심으로 -

윤 종 훈
(역사신학)

I. 들어가는 말
II. 세계관(Weltanschauung)과 문화 (Culture)
1. 세계관에 대한 제 해석
2. 문화와 문화명령
3. 분가분리의 관계성
III.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
1. 하나님의 창조 - 문화명령의 기원 (the Origin of Culture)
2. 인간의 타락 - 문화명령의 왜곡기 (Transitional and Distortional Period)
3. 그리스도의 구속
1) 지상문화의 완성(문화의 회복기 및 성숙기, the Blossoming of Culture)
2) 거룩한 새 문화의 도래(새 하늘과 새 땅, Consummation of Culture)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현대 시대사조를 대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다양한 세계관의 발현으로 인하여 도덕적 규범이 붕괴되고 진정한 가치관이 상실되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 지배담론(Masternarrative)의 탈권위와 붕괴로 인하여 빚어진 탈경전화(Decanonization)현상, 해체주의(deconstructionalism), 상대주의(Relativism) 그리고 지식과 도덕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거부하는 불확정성 원리(Uncertainty Principle) 및 비결정성(Nondeterministic) 등을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문화관에 큰 혼란과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1]

이러한 세계관의 혼란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고대 헬레니즘(Hellenism) 문화는 반기독교적인 서양의 고전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으로 주목 받아왔던 영지주의(Gnosticism)를 위시하여 몬타니스트(Montanists)와 노바티온주의자들(Novatians), 도나티스트(Donatists)와 같은 단체들은 비록 당시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반기를 들었지만 또 다른 세계관적 구도를 양산함으로써 진정한 세계관의 혼란을 가중 시켰다. 고대 및 중세의 신율 구도(God-Centre Framework)는 르네쌍스(Renaissance)와 지리상의 발견 그리고 근세로 이어지는 유럽의 이신론(Deism)과 대륙의 합리론(Rationalism), 계몽주의(Enlightenment) 시대사조를 통해 인율 구도(Human Being-Centre Framework)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혼돈의 위기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고한 해결책이 요청되는 이 시점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칼빈주의 세계관의 정체성(Identity)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을 고찰하는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고는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21세기 개혁주의이자 성경주의적인 진정한 기독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위한 문화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감을 함양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Stanley J Granz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급변하는 현대신학사조 동향에 예의주시하되 특히 Postmodernism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규명해야만 함을 강조하였다. Stanley J Gra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 W. B. Eerdmans, 1966), 167-174.

II. 세계관(Weltanschauung)과 문화(Culture)

1. 세계관에 대한 제 해석[2]

세계관이란 세계와 인간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세계관은 세계와 사물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념의 포괄적인 틀이다. 월터스(Wolters)는 이르길,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정의하였고,[3] 왈쉬와 미들톤은 세계관을 하나의 "지각의 틀(Perceptual Framework)이자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또한 "삶에 대한 시각(Vision of Life)이자, 삶을 위한 시각(Vision for Life)"으로 규정하였다.[4]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을 정의하되,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가정)들이다"라고 하였다.[5]

세계관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인식한 사이어는 다섯 가지의 기본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관을 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첫째, 진정으로 참된 실재는 무엇인가? 둘째,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사후 인간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넷째, 인간의 도덕적 기초는 무엇일까? 마지

2)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비교적 개혁주의적이자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서철원, 『기독교문화관』(총신대학출판부, 1992); 양승훈, 『기독교세계관』(CPU, 2000); 진 에드워드 비스, 오수미 역, 『현대사상과 문화의 이해』(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안드류 호패커, 정충하 역,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사상』(기독지혜사, 1992); 아더 홈즈,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도서출판 나침반, 1987); 콜린 채프만, 한상식 역, 『현대사조와 기독교 세계관』(도서출판 나침반, 1987); 엘 깔스베이끄, 황영철 역, 『기독교인의 세계관』(평화사, 1981); 그래샴 메이첸, 채경희 역, 『기독교 인간관』(나침반, 1988); 제임스 사이어, 김헌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5); 로버트 누드슨, 박삼영 역, 『기독교 세계관』(도서출판 라브리, 1988);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혜선출판사, 1990); 양승훈,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0)등을 들 수 있다.

3)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dermans, 1985), 양성만 옮김, 『창조, 타락, 구속』(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13.

막, 인간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세계관이야 말로 진정한 세계관임을 천명하였다.[6] 이처럼 세계관은 인간이 이 땅 위에 인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전제라고 볼 수 있다.[7] 이미 정립된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의 사상과 판단 그리고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삶의 근원적 배경을 이루게 된다. 특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 왕국을 실현시킬 시대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주의적이자 칼빈주의 세계관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 인간의 삶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양승훈 교수는 진정한 세계관 정립의 필요성 및 유익성을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첫째, 올바른 세계관은 통일적인 삶을 살게 한다.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선 삶의 목적이 통일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올바른 세계관은 역동적인 삶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역동적인 삶은 오직 삶의 의미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셋째, 올바른 세계관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삶의 전반적인 목적을 부여해주며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8] 이원설 박사의 지적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정신적 설계이자 신앙체계이며, 사회적 가치의 총체 또는 지적 풍토"로서, 단순한 한 이념의 사상 체계라기 보다는 우주론,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신관, 내세관 등을 종합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이며, 인생관, 물질관, 우정관, 가정관, 정치관, 교육관 등의 모체이며 틀이 된다.[9]

칼빈주의 문화관에 입각한 세계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출발하여 인간의 타락, 구속 및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가

5) James W. Sire, 김헌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19.
6) Ibid., 20-21.
7)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2003), 162. 역사철학자인 Dilthey는 세계관의 유형을 분류하되, 자연주의적 세계관, 이념주의적 세계관, 객관적 이상주의 세계관으로 분류함에 반하여, Pitrin Sorokind는 한 문명체의 세계관이 종교적, 명상적, 관념적에서 이상적 형태에서 감각적 형태로 변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61-63.
8)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23-24.
9)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44.

지 틀을 기초로 구성된다.[10]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세계관은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한다. 인간 자신의 정체성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반추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중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진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관계성이 파기되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고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계약신학적 세계관(The Worldview of Covenant Theology)을 근본으로 삼는다.

2. 문화와 문화명령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문화는 "사회생활 안에 습득된 인위적인 것으로서 그 사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기대되는 전부"로 정의되며, 사회학에서는 "사회조건 형성(Social Conditioning)을 통하여 습득한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전체"로 이해하고 있다.[11] 문화철학자인 보른하우셀(Bornhauser)은 문화를 지칭하여 이르길, "그 속에서 자연과 정신이 불가분

10)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삼대 구도로 이해된다. 이 구속(redemption)은 신자의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기 전 이미 이 땅 위에서 시작되었고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한 구속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순간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문화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적 시각으로 고찰해 볼 때 세계관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을 내포하고 있으나 구속의 의미를 좀더 세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으로써 신자는 지상에서 구원을 이미(already) 맛보고 체험케 되었다. 그러나 아직(not yet) 우리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이처럼 문화명령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양면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상 세계의 구속은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 회복 및 문화의 지상명령 완성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앞으로 도래될 천상의 구속의 완성(consummation)은 천국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면서 감당해 할 천상적 문화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할 것.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26-32.
11) 김남식, 『칼빈주의 연구』(서울: 백합출판사, 1972), 49.

하게 연합되는 영혼의 문화인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부여하며 가치를 인식하고 상품들을 공급하려고 시도하는 인간 행위의 체계(the System of Human Activity)"로 규정하였다.[12]

문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리차드 니이버(Richard Niebuhr)는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언급하였다.[13] 그에 의하면 문화는 헬라, 로마 문명이나 중세 또는 서양 문명 또는 문화처럼 어떤 특수한 인간 사회 조직의 일면에 국한된 좁은 의미를 말하기 보다는 삶의 전 영역에서 펼쳐지는 인간활동의 전과정과 그 활

12) Bornhauser, "Kulturwissenschaft und Kulturphilospphie", in Religion in Geshichte und Gegenwart, quoted in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The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76), 4.

13) 리차드 니이버는 문화를 규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상관관계성에 근거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니이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교적 문화의 아들로 이해하였다. 첫째 유형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로서 이는 대립 유형(Contrast-Model)이다. 이 입장은 일차적으로 문화를 배격한다. 즉, 문화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다. 죄악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 유형은 문화의 그리스도(Culture of Christ)로서 이는 일치유형(Identity-Model)을 의미한다. 이 입장은 문화를 온전히 수용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문화는 선(善)이다.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 점점 선으로 간다는 낙관적 입장이다. 문화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일치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적 교사이다. 즉, 복음은 문화의 완성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문화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문화가 바로 기독교이다. 셋째 유형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로서 이는 종합 유형(Synthesis-Model)을 의미한다. 이 입장은 종교가 문화를 지배하는 유형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기독교와 문화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둘 다 인정하되, 양자를 동일시하지 않고, 기독교가 확고히 우위에 서서 문화를 하위에 두고 지배하는 한에서 양자를 긍정하고 종합한다. 넷째 유형은 문화와 역설적 긴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로서, 이는 역설 유형(Paradox-Model)에 속한다. 이 입장은 문화와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모든 문화가 모두 부패했고 비교적 선한 문화에도 죄악이 깃들어있기는 마찬가지로 이해한다. 문화도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를 '찬란한 악' 이라 말하기도 한다. 최선의 문화도 복음에의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유형은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ransformer of Culture)로서 이는 변혁 유형(Reform- Model)에 속한다. 이 입장은 문화를 변혁하고자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변혁하려고 한다. 변혁주의자들은 창조를 구속을 위한 서론 정도로 여기지 않고, 성경의 본질적 주제로 간주한다.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대한기독교서회, 1991), 48-51.

동의 전적인 결과들을 지칭하는 것이다.[14] 문화는 "언어, 관습, 이념, 신념, 전통, 사회조직, 전수 받은 공예품, 기술적 진전, 가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산이자 독특한 실재(reality)"를 의미한다.[15] 이처럼 문화는 사회적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구별된 인간의 성취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언어, 교육, 전통, 신화, 과학, 예술, 철학, 정치, 법률, 의식, 발명,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의 어떤 목적을 성취코자 하는 가치의 세계임을 알 수 있다.[16]

문화라는 용어의 어원적 효시는 라틴어의 'Colere'에서 파생되었다. 이 용어는 라틴어 'colere'(colo, colui, cultum)의 수동태인 'Coltum'에 근원하고 있으며, 이는 '땅을 갈거나 경작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사전적 개념으로서 문화는 교양을 키기는 행동 또는 교양받은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교양이란 어떤 수련을 의미하는 훈련(training) 또는 세련됨과,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을 막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개량된 결과로 오는 순화(Refinement)를 의미하고 있다.[17] 따라서 헨리 미터(Henry Meeter)는 문화를 "인간의 교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인 훈련이나 문명, 풍습 또는 취미에 대한 세련을 통하여 가져오는 개량, 개명, 연단과 같은 인간개발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로 규정하였다.[18] 이처럼 문

14) 리차드 니이버,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40. 그는 Jacob Burkhardt가 문화를 어떤 특별한 일면만을 강조하되, 과학과 철학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계시와 이성의 문제, 그리스도와 정치 조직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문제만을 고찰하고, 이러한 국가와 종교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과 관계성을 거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르크하르트는 종교와 국가와 문화는 서로 온전히 이질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Jacob Burkhardt, *Force and Freedom: Reflections on History*, edited by James Hastings Nichols (New York), 140

15) Ibid., 40.

16) Mattew Arnold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논하면서 이르길, "종교와 문화가 다같이 인간의 완전을 지향하지만 인간의 가치와 미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의 조화된 발달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문화는 종교를 능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를 포괄하는 문화의 개념을 추구하였다.

17) Henry R. Vantil, 이근삼 역,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칼빈주의 문화관』(서울: 성암사, 1977), 31.

18) H. Henry Meeter,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 기본 사상』(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0), 75.

화란 인간의 예술작품, 기술과학, 인간의 지식체계, 도덕, 종교, 법률, 관습, 제도 등과 같이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인간의 삶 전체와 인간의 자기 완성을 향한 윤리적이자 영적인 인간 정신의 자기 경작과 자기 배양 과정 전체와 그 상태로 묘사할 수 있다. 문화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전자공학, 유전공학, 예술활동 등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활동과 예술활동의 총체이다.[19] 반틸이 지적한 바처럼, 문화란 인간 자신을 포함한(음성학, 생리학 등)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인간의 정신성이 깃들인 자연을 소재로 한 인간의 모든 작품은 문화에 속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가 자연상태 또는 처음 창조된 대로 존속하게 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복사물들을 더욱 발전시킬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또는 창조명령(Creation Commandment)을 주셨다.[20] 이 문화명령은 아담을 위시한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되었다. 이 명령의 대상은 오직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21]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후 곧 바로 이 명령이 모든 인류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며 그의 계명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지라도 이 거룩한 선언에서 벗어나거나 제외될 수 없는 절대

19) 서철원 교수는 문화란 "인간이 하는 모든 창조적 활동을 뜻하며 더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그것은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군사, 농업, 축산, 예술과 모든 학문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보다 성경적 개념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들로서 인간 세계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의 법칙들과 본성들의 탐구와 그 활용"을 통칭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서철원, 『기독교문화관』(총신대학출판부, 1992), 10, 13.

20) 서철원, 『기독교문화관』, 17. 신국원 교수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의 창조와 함께 문화발전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천지창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보다는 창조세계에 내재된 가능성들이 개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성으로 나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문화를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 문화전쟁시대의 기독교문화전략』(서울: IVP: 2002), 134.

21) 서철원, 『기독교문화관』, 24.

적인 사명인 것이다.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체결(Covenant)에 선행하며 신약에 선포된 복음적 명령수행보다 선행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창조 시를 기점으로 주어진 명령이었다.[22] 이처럼 문화명령은 "에덴동산에서 창조주가 창조계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함"이며,[23] 그 책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관리하고 다스리며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24] 이처럼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지적인 산물이거나 사회적 순화로 오는 결과물이거나 어떤 인간의 목적을 성취코자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문화란 하나님의 영역인 자연계를 관할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관리적 책임과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집행과정인 것이다.

3. 분가분리의 관계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이라는 개혁주의 문화관적 세계관은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틀을 구성해주고 있다. 만일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문화의 해석의 틀을 구성한다면 진정한 문화의 본질(Nature)과 정체성(Identity)을 상실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율 구조로서의 왜곡된 문화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세계관에 근거한 인생관, 학문, 언어, 교육, 과학, 예술, 철학 등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세계관을 떠난 문화관은 상호 존립할 수 없는 분가분리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신국원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골자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

22) Ibid., 23.

23) H. Hemy Meeter,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 기본 사상』, 77.

24) 창 1:28; 26; 창 9:7; 시 8편, 히 2장; 창 2:15; 히 6:7; 약 3:3,7,12; 5:7을 참조할 것.

로 지적하였다.[25]

만일 유물론적 세계관의 구도 속에서 문화를 논한다면, 인간 세계의 문화는 "한 때의 원숭이들이 막대기를 움켜 쥐었을 때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에 의해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고"주장하게 될 것이다.[26] 그 결과 인간은 나무를 떠나 네 발로 땅을 기던 일을 그만 둔 후 어떤 원숭이의 손도 흉내 낼 수 없는 수백의 작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양 손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유인원(simian)의 손도(최초의 인간들이 한 바처럼) 가장 무디어진 돌 칼도 제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27] 엥겔스(Engels)는 인간의 문화 기원을 이와 같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찾았으며 특히 인간이 손수 불을 개발(cultivation)했을 때 인간은 영원히 동물과 분리되어 진정한 문화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8] 준 기독교적(Semi-Christianity) 견지에서 문화를 이해한 휴그 블랙(Hugh Black)은 문화를 "제한이 아니라 그의 본성에 두려움 없이 복종함에 의한 인간 능력의 완전한 실현을 추구함으로, 또 확장에 의하여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퇴보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특징"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문화는 "모든 능력(faculties)을 반전시키고 정신을 단련시키며 실존의 완전하고(complete) 잘 균형 잡힌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개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신성한 의무를 동반한다"고 피력하였다.[29]

25)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132. 개혁주의 문화관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Abraham Kuyper, Klass Schilder, Herman Dooyeweerd, Cornelius Van Til, Henry Van Til, Francis Nigel Lee, Herny Meeter 등을 들 수 있다.

26)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as quoted in Wetter, *Philosophie unt Naturwissenshaft in der Sowjetunion* (Hamburg, Germany: Rowohlt, 198), 97.

27) Engels, "The Part Played by Labor in the Transition from Ape to Man in Marx and Engels", *Selected Works* II (Moscow, Soviet Union: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1), 75. cf, Ian G. Barbour, *Religion in an Age of Science* (New York: Harper Collins, 1990), 189-190; David Lyon, *Sociology and the Human Image* (Leicester, United Kingdom: IVP, 1983), 94; L. Kalsbeek,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1974)를 참조할 것.

28)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1.

29) Hugh Black, *Culture and Restraint* (London: Hodder & Stoughton, 1901), 4.

상기한 유물론적인 입장이나 관념론적 또는 자연주의적 입장에서의 세계관은 진정한 문화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계관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수 많은 난제들을 야기시키게 된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시 36:9)라는 성구가 지적해 주고 있는 바처럼, 인간은 오직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세계관에 근거해서만이 진정한 문화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

1. 하나님의 창조 - 문화명령의 기원(the Origin)

태초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고도 질서정연하게 창조사역을 수행하셨으며, 이 사역의 절정으로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tselem)과 하나님의 모양(demuwth)에 따라 창조하셨다.[30]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세상이 이 땅 위에 존재함에 대한 신앙적, 또는 신학적 의미의 표현으로서의 창조를 말함이 아니라, 역사적 창조(Historical Creation)를 의미하는 것이다.[31] 어거스틴(St. Augustinus)을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한 바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함께하는'(cum tempore)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이자 밖으로부터의

30) 창 1:26; 5:1; 9:6; 고전 11:7 참조.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4-5).

31) 만일 인간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치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 그리고 사랑, 윤리의 절대적 근거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진정한 가치성과 존재성의 고귀함을 인식치 못한 자는 결코 행복과 평화를 논할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Cf. Ranald Macaulay and Jerram Barrs, *Being Human: The Nature of Spiritual Experience* (Downer Grove, Il, IVP, 1978), 홍치모 역, 『인간 하나님의 형상』(서울: IVP, 1992), 34-5를 참조할 것.

창조(creatio ad extra)를 의미한다.[32]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창조를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소재물(materials)이 아닌 전무의 상태에서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실재를 통한 창조사역을 실행하신 것이다. 이에 반해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부수적이며 유한한 존재적 실재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사명을 받은 청지기(Steward)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33] 따라서 문화신학자인 스킬더는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성구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laborer of God)이자 동역자(Co-worker)이며 하나님의 여러 목적을 가진 직분자(Purposeful Office-bearer)이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부제(vice-regent)로 만드셨다고 주장하였다.[34]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명령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세계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할 책임성이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의 본질을 언급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땅과 지구상 위에 기

32) 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우주의 3대 구성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이 없이 완전 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Cf.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양성만 역, 『창조, 타락, 구속』, 32-36; Henry Madison Morris, *The Genesis Record - A Scientific & Devotio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Beginnings* (Grand Rapids, MI: Baker, 1976), 40-42을 참조할 것.

33) 니콜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세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지속적 관계성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둘 사이의 관계성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문화 속에서의 인간의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신적인 신비성이 존재한다. Bruce J. Nicholls, "Towards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ure", in *Down to Earth -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edited, J. R. W. Stott & R. T. Coote (Grand Rapids, Michigan, 1980), 55.

34) K. Schilder, *Christ and Culture*, 32, 37-41., quoted in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135,232.

거하는 생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다스릴 특권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35] 둘째로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영역인 땅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창세기에 제시된 인간의 땅의 정복 및 다스림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무분별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돌보고 보존해야 할 인간의 책무를 암시한다. 사실 서구문명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들어올 때, 이들은 창 1:28의 문화명령이라는 대명제의 실행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구절을 땅의 다스림 개념보다는 오히려 정복하고 착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거센 침략자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이러한 침략적인 '개척정신'(Frontier Spirit)의 '정복의 동인'(Conquest Motivation)은 성경에 제시된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입장이다. 이러한 침략주의적인 발상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시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과 인간관계 속에 유기체적으로 형성된 문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는 삶보다는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을 향유코자 하는 몸부림으로 산재해 있다. 학문과 권력과 기술을 습득함을 통해 하나님의 규범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구현코자 하기 보다는 정복을 통한 성취감을 하나님과 나누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편만해 있는 실정이다.[36]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질서를 세우고 구조적이며 법칙적이자 통제적인 세상이 가능토록 하셨다. 우주 만물의 왕 중 왕이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

35) 창 1:28; 2:15에 등장하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본문은 לְעָבְדָהּ וּלְשָׁמְרָהּ 로써 "to dress it and to keep it" (KJV) 또는 "to till it and to keep it" (RSV), 또는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NIV)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cultivate"라는 용어와 "Culture"라는 용어에는 함축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재배(culture)는 경작(Cultivation)에 의한 결과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36)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dermans, 1985), 양성만 옮김, 『창조, 타락, 구속』, 53-59.

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인 자연계를 관할하며 돌보며 경작하며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사람은 자신의 성품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능력들을 총동원하여 기능성을 발휘하도록 하셨다.[37]

이처럼 사람의 문화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이미 창조 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간의 신성한 명령적 수행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명령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는 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주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에서 더욱 분명 시 된다. 창조 시부터 인간과 대자연은 분가분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 미를 계속 유지하며 추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연 속에 숨겨진 가능성들을 계속 탐구하여 개발하고 가꾸어가야 할 책임은 이미 창조 시부터 부여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문화명령을 받은 존재이다.[38] 인간은 자기 자신의 숭고성과 거룩성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었음을 항상 인지하고 이를 유지하고 더욱 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추구해가야 할 책임으로서의 문화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인간은 홀로 창조된 존재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러 동물들과 아울러 식물들 등 대자연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물로써 문화명령의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조직이 인간사회이든지 조직된 사회이

37)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도 존재한다. 그 중 일부 재세례파(Anabaptists)와 퀘이커 교도(Quakers)들은 인간의 적극적인 문화활동 자체를 하나님의 율법위반 즉 죄악으로 규정하여 반지성주의적(Anti-intellectual)이자 반사회적(Anti-social)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38)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 받은 사실은 인간만이 소유한 독자적인 양심(conscience)과 창조적인 능력, 질서와 도덕적인 판단력에 따른 심미적인 능력, 상당한 초월성과 주권성을 소유하고 있음에서 발견하게 된다. Albert M.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39-53.

든지 오직 개인 홀로 문화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창조 시 아담은 그의 창조자에게 전적 순종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동산을 돌보며, 비인간적인(Non-Humanistic) 자연환경을 인간적인 문화로 바꾸며, 자연의 동산을 인간의 원예학(Horticulture)의 표본으로 바꾸기 위해 문화명령을 수여 받은 것이다.[39]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간의 문화적 추구성은 장래의 인간 세계에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만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령이 없었다면 이러한 인간의 문화 추구성은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들이 개발한 결과물들은 창조시의 에덴동산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더했을 것이다.

2. 인간의 타락 - 문화명령의 왜곡기 (Transitional and Distortional Period)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명령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왜곡된 반응은 전 인류의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타락의 범위는 우주적이자 범세계적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성의 상실을 초래하였다.[40] 이 타락의 동기는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자 작정한 인간의 자만심에 근거하고 있다. 타락의 정도는 인간적 노력으로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상태(Total Depravity)이자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상태로 전락되었다.[41]

39) Wielenga, "Christendom en Cultuur" in Het Wezen von het Christendom, Kampen, Netherlands: J. H. Kok, quoted in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6.

40) 정상주의자들은 지상 위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가 올바른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오직 진화론적 자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자연적 자료 이외의 상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죄가 인간과 세상에 미친 엄청난 결과를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다. A. Kuyper, *Calvinism* (Grand Rapids, 1943), 132.

41) 양승훈은 타락 이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태생적 죄인, 또는 존재론적 죄인" (Ontological Sinner, 시 51:5)으로 규정하였다. 양승훈, 『기독교세계관』, 79.

게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 자체도 뒤틀리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래 놓이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의 손이 행하는 문화자체도 이제 썩어짐의 종 노릇하게 된 것이다(롬 8:20-21; 창 6:5; 시 14).[42] 이러한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원초적 죄책(Original Guilt)와 원초적 오염(Original Pollution)이다. 즉 인류를 상징하는 아담의 대표원리로 인하여 인간은 죄의 책임(reatus culpae)과 형벌적 죄책(reatus poenae)아래 놓이게 되었다.[43] 인간은 진정한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비참한 죄의 노예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44]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므로, 마귀의 종으로 매어 있어 자신의 의지보다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그의 인도대로 행동하게 된 것이다.[45]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인 우주적 문화명령마저 사탄의 권력아래 추락된 것은 아니었다. 죄악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의 결과가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이 온 우주와 인류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종언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명령은 타락이전의 다른 실체들(realities)인 결혼제도나 안식일의 제정이 철폐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저주받은 땅 위에서 실행되는 문화적 행위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오성의 한계로 인하여 매우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화명령의 지속성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세대에 등장하는 노아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Noah's Covenant)에서 발견하게 되며, 계속해서 자연적 질서가 지속될 것임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19).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42)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24.
4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4),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464.
44) John Calvi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2.2.1-11, 311-327.
45) Ibid., 2.4.1-2.

인류의 타락이 문화명령에 미친 영향은 문화의 상실이 아니라, 문화의 왜곡과 변질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인간의 반역적 행동이었다. 신국원 교수는 타락의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타락의 결과로 생긴 첫째 변화는 문화가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문화의 대리인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비뚤어지는 것이다.[46] 이러한 문화에 미치는 죄의 영향은 구조적(Structural)이기 보다는 방향적이요(Directional), 존재론적(Ontological)이기 보다는 윤리적(Ethical)이자 궁극적으로는 종교적(Religious)인 것이다.[47] 즉, 타락으로 인한 죄악의 효과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방향의 탈선과 왜곡을 부추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왜곡된 방향성은 하나님 대신 인간과 자연만물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류의 타락은 문화명령을 수행할 대상에 대한 '신성화(Divinization)'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내적 관계를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난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신성모독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다. 우상숭배라는 문화활동을 통해 얻어낸 왜곡된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을 대신할 위치에 세우게 되었다. 이는 타락 이후 인간의 전형적인 왜곡된 문화의 첫 번째 유형이다. 헨리 반틸은 타락 후 인간은 예술의 참된 기능을 "완전을 지향하는 생의 창작적 고상화"[48]로 보지 않고 인간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비참에서 떠나게 해 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사실이며 이는 인간의 착각에서 비롯된 환상에 불과함을 피력하였다.[49]

인간은 본질상 중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존재이며 그를 떠나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유한적이자 제한적인 유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물러난 인간은 그

46)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138-9.
47) A.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67-72.
48) D. Brunner,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 Vol. II (New York, 1949), 75.
49) Henry R. Vantil, 이근삼 역,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칼빈주의 문화관』, 79.

하나님을 대신할 대상을 피조물 세계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타락 이후 인간의 문화활동의 결과물들이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우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맘몬니즘(Mammonism)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진보주의(Progressivism), 인본주의(Humanism), 기술주의(Technologism), 진화론(Darwinism), 실존주의(Existentialism), 자연주의(Naturalism), 허무주의(Nihilism), 이신론(Deism), 동양의 범신론적 일신론(Eastern Pantheisitic Monism), 뉴에이지(the New Age)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문화의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무신론적 과학과 기술의 문화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50]

인류의 타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의 상실 및 파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 주셨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당시 에덴동산의 대자연 속에서 거닐던 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였고(창 3:13), 이에 함께 동참한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배필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였다(창 3:12).[51]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성은 상실하게 되었고, 그 후에 등장하는 인류의 역사는 결국 타인에 대한 저주와 함께 자신의 저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온갖 사회는 각종 범죄, 알코올 산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매춘 등 인간의 퇴보와 문화적 허무주의로 인하여 살인과 자살로 일관하게 되었고, 문화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문학과 예술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은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죄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은 각종 소외, 절망, 고독

50) 제임스 사이어는 자신의 저술을 통하여 현대 사상이 팽배한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 사사상과 세계관, 문화관 정립의 시급성을 진지하게 논하였다.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서울: IVP, 1899), 12-202.

51) Wencelius는 인간세계에 대한 사탄의 침입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죄인은 이제 참된 미와 거짓 미를 구별하지 못한다. 사탄은 우리의 환상을 비뚤어지게 하고 죄인을 선동하며 아름다운 것들 그르치게 하여 지각할 수 없는 실재로 만들게 한다". Leon G. Wencelius, "The Word of God and Culture", in *the Word of God and the Reformed Faith* (Grand Rapids, 1943), 163.

등 비인간화적인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다.[52]

3. 그리스도의 구속

1) 지상문화의 완성(문화명령의 회복기 및 성숙기, the Blossoming of Culture)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를 일반은총(Common Grace)에 근거한 그리스도 왕권(the Kingship of Christ)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으며, 카이퍼 이래 개혁주의 진영의 최대 문화신학자 중 한 사람인 크라스 스킬더(Klas Schilder)는 문화의 핵심적인 열쇠(the Key to Culture)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두었다. 그는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역사, 하나님과 피조물, 은총과 자연 사이에 대립관계는 존재치 않으며, 다만 죄와 은총, 하나님의 세계의 회복자이신 그리스도와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사이에 대립만 존재할 뿐임을 설파하였다.[53]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왜곡되고 편협된 불협화음으로 일관되어 왔다.[54] 비록 문화명령 자체의 상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타락 후 인간은 수 천년 동안 본질적인 면에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문화가 배제된 문화활동을 행사해온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문화회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이자, 구속주, 그리고 회복주, 메시아의 신분으로 보내셨다.[5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부와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

52) Hans R. Rookmaaker, *Art Needs No Justification* (Leicester, UK: IVP, 1978), 김헌수 역, 『기독교와 현대예술』(서울: IVP, 1989), 22.

53) Henry R. Vantil, 이근삼 역,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칼빈주의 문화관』, 199.

54)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에 대한 왜곡된 행동의 결과로 예술분야에서 하나님 없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판에 박은 말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미에 대한 애착심이 예술가들의 노력의 전체와 전체의 목적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하였다. A. Kuyper, *Pro Rege* (Kampen, 1912), Vol. III. 526.

를 수 있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객관적이며(objective) 대리적인 구속(vicarious atonement)을 의미한다. 또한 이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이자 수동적인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 능동적이라 함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스스로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도록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가졌던 계약관계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며, 수동적이라 함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적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온 백성들의 채무를 탕감하셨음을 뜻한다.[56]

그리스도의 구속은 왜곡되어온 문화명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회복되어 성숙기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57]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며(요 1:3)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큰 문화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 일을 실제로 감당하셨다(고전 15:22, 45-47). 그 분은 지혜의 최고의 권좌를 누렸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로서(롬 5:12; 딤전 3:16; 고전 15:22; 마 12:42)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요 3:34)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첫째 아담이 위반했던 아담의 언약을 준수하고 그가 성취하지 못했던 문화적 대 과업(문화명령)을 수행하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친히 땅을 정복하시고 바다와 공중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거민들을 통치하셨다. 그는 바다 위를 스스로 걷기도 하셨고(막 6:45),

55)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Lee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예수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의 가장 큰 문화적 보화를 주셨으며(창 3:16; 골 1:13-17; 2:2-3), 만국의 보배가 되셔서 예술, 음악, 과학, 철학, 법, 시 등 모든 문화가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요 1:1-3), 그는 하나님의 지혜(잠 8:12-31; 고전 1:24,30)이자 모든 철학과 과학의 시작이요(골 2:2-9), 모든 문학과 시의 근본이시며, 창조의 예술가(잠 8:30)이며, 그의 손으로 하신 것과 그의 걸작이요 기술이며 그의 시(poem) 곧 그 자신의 형상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그는 문화의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이다(요 1:18).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으로 세계문화적 위기의 종말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다."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70-71.

5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621-2.

57) K. Schilder, *Christ and Culture*, 32. 스킬더는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역사를 마감짓는 종말적인 시점에 발생하지 않고 역사의 중심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광야를 정복하셨으며 땅의 들짐승과 함께 공존하셨으나 해를 받지 않으셨고(막 1:13), 목수로서(막 6:3) 수많은 문화창작활동을 스스로 감당하였다. 그는 공중과 하늘을 정복하셨다.[58]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이처럼 그리스도는 제 2의 아담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문화명령의 회복사역을 친히 수행하시되, 땅과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문화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문화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성숙된 문화명령을 수행하심은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시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문화를 이 땅 위에 창성케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계 만물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문화창달이 가능케 됨으로써 성숙한 문화활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는 구원론적 관점(Soteriological Perspective)에서 바라볼 때, 한 인간의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가운데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성화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성취인 영화로 진행되듯이, 문화명령의 과정 또한 완성기를 향하게 된다. 이러한 지상 문화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의 최종점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처럼 지상 문화의 완성은 궁극적으로는 지상명령의 실현 즉,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과 어두움에 속했던 인간이 진정한 구원적 해방과 함께 하나님께 속하는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을 확고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상문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 세계 영역에 그리스도의 문화와 말씀과 그 분의 행하신 역사를 전해야 할 지상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58)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47-48.

니라"(마 28:19-20). 이는 창 1:28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자 확증으로 이해된다.[59]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을 이루어 가도록 재창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엡 2:6-10).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전수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아래 복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부여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의 영의 능력을 통해 그 모든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갖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르치고(롬 10:9) 선포하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거룩한 새 문화의 도래(문화의 완성 - 새 하늘과 새 땅, Consummation of Culture)

지상명령의 최종점에 이 땅 위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으로 도래할 새 나라 새 땅에 펼쳐질 거룩한 새로운 문화의 시작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인 영화단계에서 성취될 문화의 종말론적인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상문화의 완성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난 포도나무의 열매를 언급하시면서(마 26:29; 사 25:6-9)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마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된 문화가 펼쳐질 것을 종말론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는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질 문화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주어진 문화명령은 영화단계를 통해 문화명령에 대한 새로운 구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만하신 은혜의 무한성을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과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돌릴

59) Ibid., 50-51.

것이다. 이처럼 만물의 창조와 전개하는 과정과 그 종말론적 목표는 하나의 끊을 수 없는 삼위일체적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60]

이러한 종말론적인 문화의 완성은 새로운 면모를 갖춘 새시대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61] 이에 대하여 칼빈은 이르길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몸은 그 본질에 있어 현재의 것과 동일할 것이다. 하등동물과 무생물들, 심지어 그들의 현재에 있는 허무함을 의식하는 나무나 돌까지도 허무한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최종적 부활을 바라고 있을까(롬 8:19)… 바울처럼 죄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된 그러한 결점들-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게 된(롬 8:22)-의 회복을 나는 기대한다"고 하였다.[62] 만일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유형화(Non-materialization)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부활

60) Ibid., 71-72. 이사야 11장; 35장; 65장은 현재 펼쳐지고 있는 동식물 왕국은 그것들의 인간과의 관계 내에서 장차 올 새 땅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61) 헤르만 바빙크는 이르길, "온 피조물은 해방되었다. 그리고 야채와 식물계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현대 개혁주의 주도적 종말론학자로 알려진 카알 데이끄(Karl Dijk)는 "전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된다. 그것은 에덴의 미를 능가하는 영광으로 승진된다. 물질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롭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78-79.

62) 칼빈은 벧후 3:10; 롬 8:19등의 주석을 통해 롬 8:21이하가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현재의 피조물들은 다 불태워질 것이지만 그것들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거나 혁신되어질 것임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새로워질 것인, 식물이나 광물은 물론 짐승들도 그렇게 될 것은 말하자면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 자못 영향 받아 부활을 강렬하게 바라지 않는 세계의 일부 또는 생활 영역은 없기 때문임을 주장하였다. J. Calvin, 『기독교강요』, III: 25.8; III: 9.5; III: 25.11. Martin Luther 또한 미래에 올 세계의 유형성을 인정하였다. "만일 우리 선조들이 낙원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파멸되지 아니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그들 이후의 우리 모두도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우리로 인하여 고통해야 했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혼란과 헛된 것에 굴복하여 왔다. …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으실 때 창조 자체는 다시금 정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다(벧후 3장의 교훈을 보라). 태양은 다시 광택있게 되고 그 빛으로 오직 축복받은 자들만 섬길 그 날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땅도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M. Luther, *Church Postille*, ed. Bahnmair, II, 363 quoted in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75.

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카이퍼의 지적처럼 이러한 비유형적이자 비물질적, 비문화적 삶의 계시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만일 비유형적 주장자들에 따르게 된다면 앞으로 도래될 새 땅에는 샤론의 백합화도 피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종달새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63] 따라서 윌리암 템플(William Temple)은 "기독교야말로 가장 위대한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유형적(Materialistic)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Flesh)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요 1:14)라고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세계의 문화의 연속성을 피력한 것이다.[64]

비록 영원한 세상에서의 변화된 인간은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리며 애쓰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창 3:17-19), 여전히 그곳에서도 의의 백성들은 일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명령을 성취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며(계 20:4; 엡 2:6),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계 7:9,15),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으며(계 7:9, 16-17), 주님으로부터 의의 흰 옷을 입고(계 6:10-11; 7:13-14) 모든 인간 문화의 창시자(the Prime Author)를 경배하며 찬미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계 4:1, 8-11; 5:11-14).[65]

IV. 나오는 말

한국교회를 위시한 오늘날 세계교회는 진정한 개혁주의 문화관에 입각한 세계관의 부재로 인하여 복음의 순수성과 방향성이 왜곡되어 흘러가고 있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미 교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정작 교회는

63) Kuyper, Ban de Voleinding, I, 488, quoted in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80.

64) William Temple, *Readings in St. John's Gospel, as quoted in Richardson, Christian Economics* (Houston: St. Thomas Press, 1966), 7.

65) 계 6:10; 7:9-10, 15,11-17; 14:2, 13; 15:1,3,7; 19:2,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82.

현실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책, 대안적 방안에 대하여 숙고하는 작업의 시기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칼빈주의이자 개혁주의적이며 성경주의적인 진정한 문화의 정체성과 본질 그리고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문화명령을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정체성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준거틀(framework)에 입각한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선하신 섭리를 따라 완성을 향하여 발전해 갈 것이다. 칼빈주의의 가장 주요한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일과 문화 전체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간주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비록 타락 이후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따라서 온 세상은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될 것이다. 칼빈주의 문화 이론가들은 문화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를 돌보며 발전시키는 사명의 준수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문화의 주체자이자 청지기적 사명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자연과 천지만물을 경작하고 보존해야 할 시대적 사명(Creation mandate, Culture commandment)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이다. 인간은 문화형성에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참된 돌봄과 누림이라는 원칙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칼빈주의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토대로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칼빈주의 세계관은 창조 시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명령 즉 문화명령의 가능성 및 방법론을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지상문화의 완성을 향한 문화명령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복음전파 사명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명령의 완성은 지상명령의 수행의 최종점에 새 나라 새 땅의 도래

를 통하여 거룩한 새 문화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기독교 문화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을 이원론적 구도로 분리해서는 안되며, 오직 기독교 문화 창달은 복음의 소외지를 향한 선교사명 및 복음증거 사명을 항상 동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주의적 문화명령은 지상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문화-역사적 피조물로서, 마 25:14-30에 제시된 바처럼,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이 땅과 앞으로 도래할 저 영원한 세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문화명령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arbour, I. G. *Religion in an Age of Science,* New York: Harper Collins, 1990.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4,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Brunner, D.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 Vol. II New York, 1949.

Burkhardt, J. *Force and Freedom: Reflections on History*, edited by James Hastings Nichols, New York, 1943.

Calvin, J.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Hoffecker, W.A. *God, Man, and Knowledge,* Phi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6.

Kalsbeek, L.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on to Herman Dooyeweerd' s Thought* , 1974.

Kuyper, A. *Calvinism* , Grand Rapids, 1943.

Lee, F. N.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The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Co., 1976.

Macaulay R. & Barrs, J. *Being Human: The Nature of Spiritual Experience*, Downer Grove, II, IVP, 1978, 홍치모 역,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IVP, 1992.

Meeter, H. H.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 기본 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0.

Morris, H. M. *The Genesis Record - A Scientific &Devotio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Beginnings* , Grand Rapids, MI: Baker, 1976.

Nicholls, B. J. "Towards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ure" , in *Down to Earth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edited, J.R.W. Stott & R.T. Coote, Grand Rapids, Michigan, 1980.

Niebuhr, H. 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91.

Rookmaaker, H. R. *Art Needs No Justification,* Leicester, UK: IVP, 1978, 김헌수 역, 『기독교와 현대예술』 서울: IVP, 1989.

Sire, J. W. 김헌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5.

Temple, W. *Readings in St. John' s Gospel, as quoted in Richardson, Christian Economics,* Houston: St. Thomas Press, 1966.

Vantil, H. R. 이근삼 역,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성암사, 1977.

Walsh, B. J & Middleton, J.R.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II: IVP, 1984,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한국기독

학생회출판부, 1987.
Wencelius, "The Word of God and Culture", in *the Word of God and the Reformed Faith* (Grand Rapids), 1943.
Wolters, A. M.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dermans, 1985, 양성만 옮김, 『창조, 타락, 구속』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김남식,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메이첸. 그레샴, 채경희 역, 『기독교 인간관』 나침반, 1988.
비스, 진 에드워드, 오수미 역, 『현대사상과 문화의 이해』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서철원, 『기독교문화관』 총신대학출판부, 1992.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문화전쟁시대의 기독교문화전략』 서울: IVP: 2002.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2003.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혜선출판사, 1990.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2003.
채프만 클린, 한상식 역, 『현대사조와 기독교 세계관』 도서출판 나침반, 1987.
호패커. 안드류, 정충하 역,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사상』 기독지혜사, 1992.
홈즈. 아더,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도서출판 나침반, 1987.

두 기독교 변증학의 거두(巨頭)(Ⅱ)

〈코르넬리우스 반 틸과 프란시스 쉐퍼〉의 비교

William Edger
홍 치 모 譯
(종교개혁사)

Ⅰ. 동의(同意)의 영역들
Ⅱ. 두 가지 예비적인 문제들
Ⅲ. 결정적 차이점들
Ⅳ. 어감(語感)의 문제

Ⅲ. 결정적 차이점들

이제 우리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그 두 사상가를 구분지어야하는 점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조차도 우리는 Van Til이 좀 과도한 면이 있으나 그의 비평의 핵심은 옳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재차 말하자면, 필자는 결정적으로 보이는 두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쟁점으로 곧장 돌입 하고자 한다. 그것은 합리주의의 문제이다. Schaeffer는 그의 모든 학문 속에서 그 진리를 입증하려고 부심했다. 그의 글들 속에는 진리를 언급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